

## 남아시아 '자비해일' 출렁~ 한국불자 현지 도착 '천수천안' 활동 개시

### 조계종 의료구호봉사대 스리랑카 탕갈라서 '진료'



남아시아 지진해일 쓰나미의 피해현장에서 의료봉사 및 구호활동을 펼칠 조계종 의료구호봉사대 선발대는 현지시간 1월 12일 0시 30분 콜롬보 공항을 통해 스리랑카에 입국한 뒤, 이날 밤 10시에 콜롬보에서 110마일 거리에 있는 남부해안 탕갈라(Tangalle)에 도착했다.

4천5백여 명이 사망하고 1400여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막대했다. 피해가구수가 3739가구에 달해 37개 이재민 캠프에 흩어져 있는 상태. 게다가 지진해일로 임시 휴교했던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많아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생복지처 실장은 "현지사정으로 진료장소와 현황 조사가 쉽지 않은 상태지만, 의료구호단 본대가 도착하는 1월 15일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구호봉사대 부단장 인오 스님(조계종 사회국장)과 정성호 동국대 학생처 학생복지실장(참사탐방사단 부단장), 이용권 조계종 복지재단 사무국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도착 즉시 탕갈라 보건소 측의 협조를 해양기술대학 기숙사에 여장을 풀고 13일 오전 의료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탕갈라를 포함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한반도타 등 주요 피해지역과 진료 예정지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곳곳에서 복구를 위해 땅을 훑는 모습이 목격됐다. 군인과 청년들이 피해가 심한 한반도타 지역에서 복구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의료당국은 콜레라, 말라리아 등 전염병 출몰을 우려하고 있으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타에서는 현지 병원과 타이완 자재공역회 의료봉사단의 진료도 진행되고 있다.

3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구호봉사단은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탕갈라와 한반도타 등지에서 2~3곳의 진료소를 마련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장답사 마치고 본격활동**  
이들 지역은 피해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안가의 가옥은 빼대만 남은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침수당시 남은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곳이 많았다. 커다란 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 가운데 걸려 있었고, 높이 15m의 송전탑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있었다. 10톤이 넘는 배가 육지에 올라와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일부 해안가에 위치한 사람과 야의 불상도 침수 외에 전각이나 성벽의 훼손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히려 해안가의 사람과 야의 불상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9·10면  
거리탁발은 이날 말까지 각 지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대전 천안 예산을 비롯한 충남 7개 지역과 마산 창원 의성 안동을 포함한 영남 6개 지역, 원주 속초 등 강원 지역,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에서 계속 전개된다. 종단, 단위 사찰, 불교단체들의 모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반도타는 해안가의 제방을 우선적으로 복구했지만, 해일로 파괴된 가옥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무 위로 솟아오른 쓰레기 등이 걸려 있는 모습도 보였다. 10%의 가옥이 완파 또는 반파된 탕갈라의 상황도 한반도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안가 도로는 복구됐지만, 주변의 가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풀(Galle)의 해안가 마을에서는 지진해일로 마을 전체가 파괴됐으나 야외에 설치된 불상 47기는 훼손되지 않았다. 또 한반도타의 해안가에 위치한 사찰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주변 주택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다. 이로 인해 파괴되지 않은 사찰에 대한 이야기가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선발대는 1월 15일까지 현지 피해조사, 의료캠프 설치, 숙소 마련, 구호차량 준비, 의료약품 및 구호품 구매 등의 활동을 펼쳐져 왔다. 또 의류 및 수건, 칫솔·치약 등 5백여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품도 활동예정지에 배포한다.

**‘할’**

집에서 불이 나도 논는데 정신팔려 집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논데 정신팔려있지 않은지...

그림 · 조태호

경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너와 내가 없고 인종과 국기도 뛰어넘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온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조계종은 1월 12일 서울 중로를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자비의 탁발을 전개했다. 아래 사진은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탕갈라와 한반도타 등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조계종 의료구호봉사대 선발대로 참가한 조계종 사회국장 인오 스님이 현지인들의 애로점을 파악하는 모습. 사진=박재완·박봉영 기자

## '거리탁발' 전국서 뜨거운 동참

남아시아 피해민을 위한 불교계의 구호활동과 성금모금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의 '자비의 탁발'을 중심으로 남아시아 피해민 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조계종의 거리탁발이 서울 부산 대구 강릉 청도 고령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다.

금운통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태고종이 사찰별로 모금운동에 들어간데 이어 사태 직후 곧바로 성금을 전달했던 천태종도 전국 단위사찰별로 성금모금을 시작했다. 송광사 백양사 등은 교구본사에서 모금함을 설치했다.

을 유 년 새 해 자 비 광 명 온 누 리 에

"좋은 인연입니다"

(재)대한불교 조계종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www.ahnkookzen.org

■ 법인사무국: 051)892-9803 | 부산: 051)892-9877 | 서울: 02)732-0772 | 청원: 055)281-0772  
■ 미국휴스턴: (001)713 467-0997 | 뉴질랜드 오클랜드: (001-649-4126442)

## 대안학교 '몽(夢)' 3월 개교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 불교 첫 '도시형'

불교계 최초의 도시형 대안학교 '몽(夢)'이 3월 역삼청소년수련관에 개교한다.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도영)에서 위탁운영하는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박동녀)이 설립한 도시형 대안학교 '몽'은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수영장, 체력단련실, 예절교실, AV스튜디오, 멀티미디어교육실, 음악 및 댄스연습실, 골프연습장, 체육관 등을 구비하고 있다.

어 있다. 문화유적 답사, 요가, 문화체험, 나눔의 집 탐방 등 정규교과목에서 불교적인 요소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년 2학기제로 시작하는 '몽'은 15~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월 17일~2월 19일까지 15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안학교 '몽'은 2006년 정인환 대 및 2년제로 학제개편을 피함과 동시에 2007년 장애 비장애 청소년 통합교육을 시도해 학력인정 학교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02)550-3625, www.gyc.or.kr

## 개혁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 결성

**각 종단 20여 단체**

종교인들이 각 종교의 개혁과 자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의 20여개 종교단체들은 1월 13일 오후 '우리함께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각 종교의 쇄신과 자정을 위한 가정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 이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창립 작업에 들어갔다.

네트워크는 각 단체별로 자정운동을 지속함과 동시에 워크숍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구체적인 경향을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내 종교자유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청소년들의 종교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 사이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개설

**나눔의 집, 이달말 오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원장 원행)은 인터넷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둘러볼 수 있는 사이버 박물관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될 사이버 박물관은 일제시대 일본군 성폭행으로 고통받은 할머니들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목적용 두고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본어, 영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나눔의 집 안전신문 사무국장은 "개설 후 학술자료제공과 사전답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사이버 역사관에는 할머니들의 그림, 유품 등도 함께 전시되며 1월 말에 정식 오픈 할 예정이다. 031)768-0064 김강진 기자

## 새연재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13편

**현대불교 제10회 신행수기 시상식**

- 때: 2005년 1월 29일 오후 2시
- 장소: 동산불교대학 강당(조계사 인근)

## 현대불교 2004년 합본집 발간 <2면에 안내 사고>

## '현대불교' 영구독자를 모집합니다

- 영구독자 혜택  
현대불교신문 영구독자에게는 평생 신문을 보내드리며, 자녀에게도 혜택을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구독료 62만5천원(일시불 납부)
- 구독신청 및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TEL: 직통 (02) 737-0090 / 대표 02-737-8881  
FAX: (02) 737-0697

## 스마트폰 '아이 벳' 무료 증정

- 독자님들의 성원에 따라 선착순 1000명에 한하여 영구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HP nw6100 기종, 시중가 72만6천원) 아이벳(i-BUD)을 무료로 드립니다.
  - 아이벳(i-BUD) 제공조건: 18개월의 무사용, 가입비 3만원 별도
  - 아이벳(i-BUD): 아이벳의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t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며, BUD는 Buddha(부처), Buddy(친구)를 뜻합니다.
-